

석사학위논문

# 존 칼빈의 강해설교 연구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이 역 주

지도교수 황재범

2001년 6월

---

# 존 칼빈의 강해설교 연구

지도교수 황 재 범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6월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이 익 주

---

# 이억주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 반 신 환

부심 정 중 호

부심 황 재 범

계 명 대 학 교 신 학 대 학 원

2 0 0 1 년 6 월

---

# 차 례

|   |    |
|---|----|
| I. 서론 .....                               | 1  |
| 1. 연구동기와 목적 .....                         | 1  |
| 2. 연구방법 및 범위와 한계 .....                    | 1  |
| 3. 연구사 .....                              | 3  |
| II. 칼빈의 본문 주석(요1:1-5)과 그 특징 .....         | 5  |
| 1. 칼빈의 본문(요1:1-5)주석 .....                 | 5  |
| 2. 칼빈의 주석(요1:1-5)과 강해설교(요1:1-5)의 관계 ..... | 10 |
| 3. 칼빈의 강해설교 적용과 방법 .....                  | 17 |
| 4. 칼빈의 주석과 강해설교에 대한 결론 .....              | 20 |
| III.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 .....        | 21 |
| 1. 본문 주해(요1:3, 14, 16) 및 설교 .....         | 21 |
| 2. 박형룡의 주해설교 및 그 특징 .....                 | 24 |
| 3.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에 대한 결론 .....   | 27 |
| IV. 칼빈설교와 박형룡 설교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     | 28 |
| 1. 공통점 .....                              | 28 |
| 2. 차이점 .....                              | 31 |
| 3. 그 이유 .....                             | 34 |

|                             |    |
|-----------------------------|----|
| 4. 21세기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방향 ..... | 35 |
| V. 결 론 .....                | 38 |
| 참고문헌 .....                  | 40 |
| 국문초록 .....                  | 42 |
| 영문초록 .....                  | 44 |

## 약 어 표

*Sermons:* John Calvin, *Sermons on the Saving Work of Christ*, selected and translated by Leroy Nix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Michigan, 1947.

*Commentaries:*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John 1-10*, Grand Rapids: Eerdmends, 1961.

# I. 서 론

## 1. 연구동기와 목적

존 칼빈의 강해설교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며, 지금, 이 시대에도 칼빈의 설교는 강해설교로서 그 영향력있는 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또한 “그의 강해설교”는 성경본문을 어떻게 주석하고 설교하였으며, 어떻게 적용해 왔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목회현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자는 칼빈의 강해설교(요1:1-5)를 분석하고,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1 -5)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21세기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강해설교의 모형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 한국교회의 설교관행은 제목설교, 혹은 주제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관행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다룬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교회 강단에 좋은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칼빈의 성경주석 방법과 그 내용, 그리고 이것을 설교로 실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특정한 본문(요1:1-5)을 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문은 요한복음1:1-5을 택하였다. 칼빈의 2,040여 설교들 가운데 연구자가 특별히 요한복음1:1-5의 강해설교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칼빈은 요한복음서를 공관복음서를 이해하는 키(열쇠)로 보았다는 것이다. 둘째, 칼빈이 요한복음 1:1-5을 주석하고, 강해한 그 설교속에 요한복음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칼빈신학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셋째, 본문(요1:1-5)주석과 강해설교를 보면 (1) 칼빈의 3위1체

신학이 보인다. (2) 창조신학을 알 수 있다. (3)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인죄론이 나온다. (4) 칼빈의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요1:1-5)의 강해설교는 칼빈신학의 모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칼빈의 강해설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방법은, 칼빈의 주석, 칼빈의 설교자료 및 그의 강해설교집과 강해설교 연구논문, 기타 문헌들을 연구하고, 나아가 한국교회 강해설교자들의 저서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칼빈의 저서로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설교'<sup>1)</sup>와 『칼빈의 신약주석(요1-10)』<sup>2)</sup>을 연구자가 번역하여 참고 하였다. 또한 이미 번역된 강해설교 자료들, 『칼빈주의 사상과 삶』<sup>3)</sup>, 『칼빈과 설교』<sup>4)</sup>, 『칼빈의 설교학』<sup>5)</sup>, 그리고 박형룡 『저작전집XIX 설교②』<sup>6)</sup>,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sup>7)</sup> 및 참고서에 기록된 33권의 국내외 자료, 즉 영문 및 한글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논문은 제1장에서 연구의 동기와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 칼빈의 본문주석(요1:1-5)과 강해설교에 대한 반영, 설교의 특징과 적용 및 결론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 및 그 특징과 이유를 점검하고 결론을 내렸으며, 제4장에서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다음 그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나아가 21세기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제5장에서 이 연구논문에 대한 최종점검과 마무리를 하였다.

---

1) *Sermons, 13-34.*

2) *Commentaries, 7-13.*

3)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Calvinism as the Life-System)』,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11-55.

4)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말씀사, 1997) 1-209.

5) John Calvin, *Calvin et Sermons*, 박건택 편역,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1- 333.

6) 박형룡, 『저작전집XIX 설교②』,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3) 293-7.

7)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 (서울: 홍성사, 1999) 28-77.



### 3. 연구사

칼빈은 주후1549년부터 1564년 그가 사망하기까지 15년동안 설교하였다.<sup>8)</sup> 칼빈이 평생 설교한 것은 2,040여편이다.<sup>9)</sup> 불어로 된 설교 1천편과 민수기를 연속적으로 200편을 설교하였다. 칼빈은 한편의 성탄절 특별설교와 두편의 특별설교(1559과 1560 부활절)를 포함, 20편의 특별설교를 하였다. 그 가운데 연구자가 선택한 본문(요1:1-5)은 불어로 된 칼빈의 20개 특별 설교문 가운데 리로이 닉슨(Leroy Nixon)이 순전히 독단적으로 선택하여 영어로 번역, 편집한 것이다.

리로이 닉슨(Leroy Nixon)은 '칼빈의 그리스도 구원사역 설교'<sup>10)</sup>를 통해 (요1:1-5)을 편집하면서 칼빈이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취급하였다.

박형룡은 『저작전집XIX 설교②』,<sup>11)</sup>을 통해 본문(요1:3,14.16)을 주해하여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道成人身)"을 강조하였다. 존 던(John Dwen)은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 구원사역 설교』,<sup>12)</sup>를 통해 "성경 해석"을 다뤘다. 배틀스(Ford Lewis Battles)는 칼빈의 성경해석<sup>13)</sup>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다뤘다.

존 칼빈은 『신약성경 주석(요1-10)』,<sup>14)</sup>을 통해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1:1-5을 심도있게 주석<sup>15)</sup>하였다. 정성구는 『칼빈주의 사상과 삶』<sup>16)</sup>이란 저서를 통해 칼빈의 신학과 사상적인 부분을 취급하였다. 파커(T. H. L. Parker)는 『칼빈과 설교』<sup>17)</sup>를 통해 칼빈이 행한 설교의 특징 전반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민기태는 「칼빈의 설교

8) T. H. L. Parker, op. cit., 205-234.

9) Ibid.

10) *Sermons*, 13-34.

11) 박형룡, op. cit., 293-297.

12)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 T. McNei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0-20.

13) Ford Lewis Battles, op. cit., 1-110.

14) *Commentaries*, 7-13.

15) 존 칼빈, 『신약성경 주석(요한복음 I)』 (서울: 존 칼빈 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성서교재간행사, 1979) 55-81.

16) 정성구, op. cit., 13-220.

17) T. H. L. Parker, op. cit., 5-234.

내용 연구논문」,18)을 통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칼빈의 설교적용과 교회 성장을 집중 연구하였다. 존 T. 맥니일(John T. McNeil)은 『기독교 강요』,19)를 통해 칼빈의 설교를 조명해 보았다. 김서택은 『건축술로서 강해설교』,20)에서 칼빈은 강해설교의 아버지이며 귀납적(케류그마) 강해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다뤘다.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칼빈의 강해설교(요1:1-5)를 번역하고, 칼빈의 강해설교 특징과 강해설교 원리 및 그 적용과 방법등 실재를 다루고, 나아가 박형룡의 강해설교 내용과 그 특징들을 연구한 후, 두 설교의 특징들을 분석, 그 공통점과 차이점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성경적이고, 보다 교회중심적인, 21세기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

18) 민기태, 「칼빈의 설교내용 연구」 (풀러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1995) 1-237.

19)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trans.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10-120.

20)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 (서울: 홍성사, 1999) 29-75.

## II. 칼빈의 본문주석(요1:1-5)과 그 특징

태초에 말씀<sup>21)</sup>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은 하나님이였다(1).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2).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3).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인간의 빛이었다(4). 그 빛은 어둠에서 빛나고, 어둠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5).<sup>22)</sup>

### 1. 칼빈의 본문(요1:1-5) 주석

본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칼빈의 강해설교이지만 그가 강해설교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그의 주석을 먼저 검토하고자 한다. 칼빈이 본문(요1:1-5)을 주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1) 그리스도의 신성강조. 칼빈은 본문(요1:1-5)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다섯절을 주석하면서, 한절에 한번 이상씩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석하였다. 칼빈은 1절 초반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sup>23)</sup>는 것을 요한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주석하였다. 칼빈은 이 구절에서 요한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목적은 인간의 회복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완수되어야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칼빈은 1절 후반부에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였다<sup>24)</sup>고 주석하였다. 칼빈은 요한이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밝혀 어떤 의심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sup>25)</sup> 칼빈은 요한이 본문 2절에서 동일한 분이

21) HO LOGOS (그리스어), sermo (라틴어), la parole (불어)

22) *Sermons*, 13.

23) *Commentaries*, 7.

24) *Ibid.*

25) *Sermons*, 25.

태초에 있었다<sup>26)</sup>고 주석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 깊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킬 생각으로 한 것임을 말한다.<sup>27)</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남아있지 않게 하자고 말했다. 왜냐하면 칼빈은 명백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3절 초반부에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sup>28)</sup>는 주석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했다. 칼빈은 요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속성을 말한 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Works)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한다고 말했다.<sup>29)</sup> 칼빈은 본문 5절 초반부 그리고 빛은 어둠 속에서 비쳤다<sup>30)</sup>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간에게 비쳤다고 주석하였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품이 부패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둠에 묻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31)</sup> 따라서 칼빈은 부패한 성품 속에 남아 있는 인간의 타고난 이성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주석하였다.<sup>32)</sup>

2) 구원교리를 강조. 칼빈은 본문 1절을 두 번에 걸쳐 구원교리로 주석하였다. 칼빈은 1절 초반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sup>33)</sup>를 구원교리로 주석하면서,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외에 생명과 구원을 얻을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르침의 명확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그리스도께 둘 수 있겠는가? 칼빈은 첫째, 그리스도는 영원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의지시다. 둘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Sermo)이라고 불렀다.<sup>34)</sup>

---

26) *Ibid.*

27) *Ibid.*

28) *Ibid.*

29) *Ibid.*, 26.

30) *Ibid.*

31) 존 칼빈, *op. cit.*, 28-9.

32) *Commentaries*, 11-3.

33) *Ibid.*, 7.

34) *Ibid.*

3) 말씀의 이중적 관계성을 강조. 칼빈은 본문(요1:1) 가운데 1절 초반부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sup>35)</sup>는 이 “말씀”이 이중적 관계성을 갖는다고 주석하였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이전에 숨겨진 채로 그 자신 안에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두 가지 이중적 관계를 가진다. 둘째, 칼빈은 1절에 말씀이 계셨으니(was)<sup>36)</sup>라는 과거형을 현재진행형으로 주석하였다. 칼빈은 말씀이 계셨으니(was)라는 말보다 계셔왔으니(was being)라고 하는 말이 계속적이며 연속을 나타내어 더 좋은 표현이 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도요한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안에 계셔온 말씀이 세상을 외적으로 창조하면서 자신을 나타내기 이전에는 그곳에 숨겨져 있었다는 내용으로 만족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sup>37)</sup> 그러므로 칼빈은 본문 1절을 주석하면서 어거스틴은 요한이 언급한 태초(Beginning)는 전혀 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옳았다고 말했다.<sup>38)</sup> 칼빈은 1절 후반부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sup>39)</sup>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보다 높이 계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계시며 모든 시대보다 앞서 계신분이라고 주석했다. 또한 아들은 아버지와 다른 실체(Hypostasis)라고 말했다.<sup>40)</sup> 이 구절은 그것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벨리우스(Sabellius)의 오류를 반박하는데 도움을 준다.<sup>41)</sup>

4) 말씀의 선재성을 강조. 칼빈은 요한이 본문 2절에서 동일한 분이 태초에 있었다<sup>42)</sup>고 주석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설교한 말씀의 내용,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욱 깊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시킬 생각으로 한 것임을 말한다.<sup>43)</sup> 따라서 칼빈은

35) *Ibid.*

36) *Commentaries*, 7-8.

37) 존 칼빈, *op. cit.*, 22.

38) *Ibid.*, 23-24.

39) *Commentaries*, 9.

40) *Sermons*, 24-5.

41) *Commentaries*, 9.

42) *Ibid.*

요한이 말한 이 “태초(시작)”가 모든 시간보다 이전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sup>44)</sup>

5)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강조. 칼빈은 3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sup>45)</sup>는 본문주석을 통해 믿음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귀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느끼지 않는 한 우리를 차가운 상태로 둘 것이기 때문이다.<sup>46)</sup> 칼빈은 3절 후반부 그리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어떠한 것도 지음받지 않았다<sup>47)</sup>는 주석을 통해 “생명”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비록 이 구절이 다양하게 해석되지만 그것을 유일한 생각<sup>48)</sup>으로 취급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거의 모든 그리스 저작들도 이것에 동의한다. 창조된 이라는 구절과 이전 구절을 분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 다음 구절에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창조된 모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즉, ‘살았다’ 혹은 ‘생명 안에 유지되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sup>49)</sup>

6) 생명을 강조. 칼빈은 4절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sup>50)</sup>는 본문을 통하여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빛이 비취었다고 주석하였다. 칼빈은 지금까지 요한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쳤다. 지금 그는 창조된 모든 것들의 보존을 말씀에 돌리고 있다. 마치 그는 세상의 창조에서 말씀의 힘이 갑자기 나타나서 단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의 고정되고 정착된 질서의 유지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마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 혹은 그의 권능의 명령에 의해 모든 것을 지탱한다<sup>51)</sup>

---

43) *Sermons*, 25.

44) *Ibid.*, 25-6.

45) *Ibid.*

46) *Ibid.*, 9-10.

47) *Ibid.*, 10.

48) 창조된 어떤 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49) *Ibid.*

50) *Ibid.*

고 말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에 근원이며 말씀은 생명을 주는 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현 상태로 유지시킨다고 말했다.<sup>52)</sup> 칼빈은 4절 후반부 *생명은 인간들의 빛이었다*<sup>53)</sup>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다른 어떤 피조물들 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고 주석하였다.<sup>54)</sup> 그 이유는 빛 때문이다. 칼빈은 이것이 인간은 다른 생명있는 피조물 보다 앞선 생명이라는 것을 언급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빛과 연합된 생명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칼빈은 우리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보다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낌으로서 하나님의 힘을 더 깨닫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구별한다.<sup>55)</sup>

7) 인간의 전적타락과 비참성을 강조. 칼빈은 본문 5절 그리고 *빛은 어두움속에서 빛났다*<sup>56)</sup>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적 무지와 영적타락을 주석하였다. 인간은 많은 성경구절에 무지한채 불리었고 그들이 비탄받고 있는 무지는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모든 이성에서 그들은 비참하게 소멸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잘못의 미로가 단지 인간의 공허함과 허위만 초래하는 그들 자신의 이해력 부족으로 돌린다.<sup>57)</sup> 따라서 칼빈은 5절 후반부<sup>58)</sup>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전적타락과 구원을 주석하였다. 칼빈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부름받은 우리안에 희미한 빛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한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했다.<sup>59)</sup> 칼빈은 5절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두 가지 독특한 권능을 주석하였다. 첫째는 세계를 조각할 때와 자연의 질서에서 나타난다. 두번째 권능으로 하나님은 타락한 인

---

51) *Ibid.*

52) *Ibid.*, 10-1.

53) *Ibid.*, 11.

54) *Ibid.*

55) *Ibid.*

56) *Ibid.*

57) *Ibid.*

58) *Ibid.*, 12.

59) *Ibid.*

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킨다고 말했다.<sup>60)</sup>

## 2. 칼빈의 주석(요1:1-5)과 강해설교(요1:1-5)의 관계

칼빈은 자신이 주석한 본문(요1:1-5)을 어떻게 설교에 반영하였는가? 칼빈은 자신이 주석한 본문을 철저하게 강해설교로 선포하였다. 그 흥미로운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 칼빈은 이 본문(요1:1-5)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sup>61)</sup>이라는 제목으로 강해설교를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칼빈이 본문의 다섯구절(1-5) 가운데 각 절들을 한번 이상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주석<sup>62)</sup>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강해설교로 선포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sup>63)</sup> 칼빈은 이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3위1체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을 가지신 분, 그가 본래 “말씀” 그 자체였다고 증거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인간구원을 위하여 육체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소유한 분이라고 설교하였다.

2) 복음의 강조. 칼빈은 본문(요1:1-2)의 태초에 말씀<sup>64)</sup>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유를 들어 본문(요1:1-2)을 “복음”으로 설교하였다. 이것은 칼빈 자신이 본문(요1:1-2)을 주석한 내용을 설교에 반영한 증거다.<sup>65)</sup> 따라서 “복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

60) *Ibid.*, 12-3.

61) 현대영어로 “divinity”를 의미하는 “divinite”를 사용하였지만, 애매모호하다, 따라서 “diety”로 번역할 수 있다.

62) *Commentaries*, 7-13.

63) *Sermons*, 13-34.

64) TO RHEMA (그리스어), *verbum*(라틴어), *le mot* (불어)

65) *Commentaries*, 7-9.



도,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 자신이 아버지임을 모든 세상에 선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본문의 태초에 말씀(요1:1-2)이라는 이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일하셨고,<sup>66)</sup>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4가지의 기록된 역사서<sup>67)</sup>로서 그 이유를 밝혀주기 때문에 “복음”으로 설교하였다. 칼빈은 본문(요1:2)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과 마음의 동요를 막기 위한 확증적 결론으로 주석하였다.<sup>68)</sup> 왜 그런가? 복음의 내용은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확증하시고 인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님, 실로 하나님 뜻 안(Yea and Amen)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4개의 역사(복음)서를 “복음”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모든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그것이 모두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복음”으로 설교하였다.<sup>69)</sup> 칼빈이 본문(요1:1-2)을 “복음”으로 설교한 것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요1:1-2)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sup>70)</sup>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perfected)<sup>71)</sup> 항상 약속하셨던 것들에 대한 진실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사,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주석한 내용<sup>72)</sup>을 설교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것은 사도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아니다.<sup>73)</sup> 바울 사도가 자랑한 복음<sup>74)</sup>, 곧 그의 가르침이

66) 불어, *converse*, 고대 라틴어 개념으로 사용.

67) 혹은 이야기들, 사람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항상 사실은 아니라고 믿는 것을 제외하고

68) *John Calvin, op. cit., 7-13.*

69) *Sermons, 14.*

70) 불어로 *announce*.

71) 혹은 완성되고(*completed*).

72) *Commentaries, 7-13.*

73) *Sermons, 13-4.*

모두 공관복음서와 본문(요1:1-5)에 포함된 모든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어떻게 그가<sup>75)</sup>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면서 그는<sup>76)</sup> 우리의 진정한 형제이고자 뜻을 세우셨는가, 어떻게 그는 죽었고<sup>77)</sup>,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는가를 보여주는 일관된 역사가 4복음서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sup>78)</sup> 그러므로 칼빈은 이 “본문(요1:1-5)”을 복음으로 설교한 것이다.<sup>79)</sup>

칼빈은 본문(요1:1-2)의 “말씀”이 시간속(인류역사)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설교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높이 있고, 먼저 있었으며, 무시간 속에 있었다는 주석(요1:1-2)<sup>80)</sup>을 설교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본문(요1:1-2)에 두 번 나오는 “태초”는 모세(창1:1)가 말하는 “태초”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모세가 말한 “태초(창1:1)”는 시간속에 있는 태초이다. 모세는 어떤 시간이 존재하기 시작한 피조물을 다룬다.<sup>81)</sup> 그러나 사도요한이 말하는 “태초(요1:1)”는 시간의 요소를 초월한 시작이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 시간이라는 요소가 없는 시작이라고 결론지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칼빈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문(요1:1-2)을 복음으로 설교하였다.<sup>82)</sup>

3) 그리스도의 덕(virtue, 힘, 권능)을 강조. 칼빈은 태초에 말씀(요1:1-2)을 “그리스도의 덕”으로 설교하였다.<sup>83)</sup> 요한이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요1:1-2)”.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단지 모든 곳으로 전파되었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가 이미 존

74) 로마서 2장 16절.

75) 하나님.

76)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77) 그리스도.

78) *Sermons*, 14-5.

79) *Ibid*, 15.

80) *Commentaries*, 7-9.

81) *Sermons*, 21.

82) *Ibid*.

83) *Sermons*, 15-6.

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칼빈이 본문(요1:1-2)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주석한 내용을 설교에 반영한 것이다.<sup>84)</sup> 그래서 칼빈은 본문(요1:1-2)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덕”이라 설교한 것이다. 이 덕은 어느 곳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며,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덕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인류에게 증명되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어졌음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며, 그 자신에게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sup>85)</sup> 그 이유 때문에 칼빈은 본문(요1:1-2)을 그리스도의 덕으로 설교하였다.

칼빈은 태초에 말씀(요1:1-2)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권세)”로 설교하였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께 의한 예수님의 의무위임,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덕, 권세, 선하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오랫동안 멈춘다. 특히 사도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나아간다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이러한 방식으로 덕을 주신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칼빈은 이 본문(요1:1-2)을 그리스도의 덕으로 선포하였다.<sup>86)</sup>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를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듬거려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위엄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므로 칼빈은 본문(요1:1-2)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덕이라 설교하였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요1:1-5)이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고 설교하였다. 하나님은 확실히 하늘과 땅, 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의 모든 작품들에서 확장되기를 희망하시지만, 인간에게 훨씬 더 많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모든 피조물 보다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각인했기 때문이다. 태양, 별,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며 “나는

84) *Commentaries*, 7-9.

85) *Ibid.*

86) *Sermons*, 16-7.

나의 형상과 유사함을 가진 완성품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칼빈은 요한이 하나님의 덕에 대해 말할 때, 모든 피조물까지 확장되지만 결국은 인간에게 귀착된다고 말했다.<sup>87)</sup> 이것이 우리가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덕과 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칼빈이 주석한 내용(요1:1-2)<sup>88)</sup>을 여기에 반영한 것이다.<sup>89)</sup>

4)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로 강조. 칼빈은 “태초의 말씀(요1:1-2)”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설교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본문(요1:1-2)을 주석한 내용을 설교에 반영한 것이다.<sup>90)</sup>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인간에게서 나타내실 때 우리는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그를 다른 피조물에 고려할 때 우리는 그의 등을 어렵듯이 본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 속에서도 보여진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 손, 그리고 등을 본다. 그러나, 인간에게서 항상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숙고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얼굴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성스러운 어떤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알려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sup>91)</sup>

5)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 칼빈은 “태초에 말씀(요1:1-2)”이 “하나님의 근본지혜”라고 설교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주석<sup>92)</sup>한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칭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이다.<sup>93)</sup>

---

87) 철학 용어로 “소우주(microcosm)”이다. 칼빈은 이러한 경우 보통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어체 불어를 사용했다.

88) *Commentaries*, 7-9.

89) *Sermons*, 15-6.

90) *Commentaries*, 7-9.

91) *Sermons*, 31-2.

92) *Commentaries*, 7-9.

93) *Sermons*, 21.

6) 빛과 어둠을 강조. 칼빈은 빛이 어둠에게 오신 생명의 선물이라고 설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을 가지고 “어둠의 인류에게 빛”으로 오셨다. 칼빈은 여기서 빛과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 전적타락을 주석(요1:4-5)한 내용을 설교에 반영하였다.<sup>94)</sup>

그 안에 생명이..... 빛으로 오셨다(요1:4-5). 이 생명은 하나님의 광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탱되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sup>95)</sup>의 능력의 말씀<sup>96)</sup>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칼빈은 이곳에서 말씀(Word)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힘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부여한 감탄할만한 배열과 명확한 질서를 의미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덕과 힘을 통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과 움직임을 가지는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먹은 후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산다.

칼빈은 빛이 어둠에 비취되... 깨닫지 못하더라(요1:4-5)는 말씀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요 1:4-5).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빛<sup>97)</sup>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언급한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죄에 의해 손상되었다. 우리는 마귀가 죄에 의해 인간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형태가 바뀌고 타락한 인간(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밝음<sup>98)</sup>을 꺼지게 했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이러한 밝음을 그의 간교함으로 어둠의 중심부에서 빛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이 복음서 저자인 사도요한이 보여주고자, 지적

---

94) *Commentaries, 9-13.*

95) 하나님의 아들.

96) 대문자로 쓰지 않음, 그는 하나님의 “말씀(Word)” 혹은 “지혜(wisdom)”다. 이와같이 아들을 “말씀(Word)” 혹은 “지혜(wisdom)”로 쓴다.

97) 혹은 명료한 지성.

98) 혹은 명료한 빛.

하기 원했던 바로 그것(빛과 어둠의 대조)이었다.<sup>99)</sup>

칼빈은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4-5)는 말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빛은 구원에 충분하다”는 말로 설교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자신이 주석한 본문(요1:4-5)<sup>100)</sup>의 “생명주심의 선물”과 “인간의 전적타락”을 설교에 반영한 것이다.<sup>101)</sup> 이 본문에 의해 칼빈은 인간의 배은망덕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빛이 우리(인간)에게 비취지도록 했다. 그의 말씀이 그곳에서 빛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으로 그 빛을 흐리게 한다. 확실히, 복음자체는 우리에게 이 빛에 대한 선포요 증명이다.<sup>102)</sup> 칼빈은 여기서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완전히 변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으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교하였다.<sup>103)</sup> 이것이 사도요한이 우리 구원의 효과를 알도록 우리를 위해 준비한 방법이었다.<sup>104)</sup>

7) 4복음서의 역사를 강조. 칼빈은 설교를 통해 4복음서를 4개의 역사서로 말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4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칼빈은 4개의 역사서라고 설교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본문(요1:1-5)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역사(歷史)로 주석한 내용<sup>105)</sup>을 설교에 반영한 것이다.<sup>106)</sup> 칼빈은 “태초에 말씀(요1:1-2)”이라는 이 단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일하셨고,<sup>107)</sup>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가에 대한 4가지의 기록된 역사서<sup>108)</sup>로 그 제목이 발

---

99) *Sermons*, 32.

100) *Commentaries*, 9-13.

101) *Sermons*, 32-3.

102) *Ibid.*

103) *Ibid.*, 33-4.

104) *Ibid.*, 34.

105) *Commentaries*, 7-13.

106) *Sermons*, 33-4.

107) 불어, *converse*, 고대 라틴어 개념으로 사용.

108) 혹은 이야기들, 사람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항상 사실은 아니라고 믿는 것을 제외하고.

견되기 때문이라고 설교하였다.<sup>109)</sup> 칼빈이 본문(요1:1-5)의 설교를 통해 4개의 역사서를 이름 붙인 것은 우리(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함께 다시 사셨는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칼빈은 이 모든것들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그 역사가 모두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4개의 역사서라는 이름으로 설교하였다.<sup>110)</sup> 칼빈은 4복음서 외에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4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생한 역사서이라고 설교하였다.<sup>111)</sup> 따라서 칼빈은 자신이 이미 공언했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4개의 역사(복음)서를 통해,<sup>112)</sup> 그리스도의 임무, 하나님 그의 아버지에게 의해 위임된 임무 그리고 그의 권세를 알 수 있다고 설교하였다.<sup>113)</sup>

### 3. 칼빈의 강해설교 적용과 방법

칼빈은 자신의 주석을 반영한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을까? 설교중 어느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어조로 회중들의 가슴에 박히는 적절한 설교적용을 하였을까? 여기서 칼빈의 설교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을 강해(요1:1-5)하고 즉시 적용하였다. 그 실례로, 칼빈은 요한복음(1:1-5)을 “복음”이라고 강해하고, 설교중에 즉시 청중(성도)들에게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복음”으로 이름 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어떻게 그가<sup>114)</sup> 우리의 본성을

109) *Ibid.*, 14.

110) *Ibid.*

111) 그리스도.

112) *Ibid.*, 14-5.

113) *Ibid.*, 15.

114) 하나님.

잘 아시면서 그는<sup>115)</sup> 우리의 진정한 형제이고자 뜻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사람)는 “어떻게 그가 죽었고<sup>116)</sup>,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라가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관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그 목적은 이 땅(어둠:사람)을 복음화하는 것이라고 적용하였다.<sup>117)</sup>

2) 반복해서 적용하였다. 이것은 칼빈이 설교적용에서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칼빈은 요한복음(1:1-5)의 설교 가운데, “태초(3)”, “말씀(3)”, “하나님(5)”, “어둠” “복음(6)”, “은총(3)”을 반복해서 강해설교로 적용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그 은총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됨을 우리에게 적용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요1:1-5) 이 은총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요1:1-2)에 매달려야 한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빛이 우리의 사악함에 의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들 심중에 머물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적용하였다.<sup>118)</sup>

3) 전체나 일부를 적용하였다. 칼빈은 본문(요1:1-5)을 강해하면서, “창조된 아무 것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요1:3)”는 말씀으로 설교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이 설교적용은 대상 전체를 겨냥한 전 우주적인 적용이다. 칼빈은 본문(요1:1-5)을 “복음”으로 강해하고, 그 설교 전체를 “전 우주의 복음”으로 적용하였다. 칼빈은 본문(요1:4-5)에 나오는 인간의 전적타락을 전 인류에게 적용하였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어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요1:4-5).”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빛<sup>119)</sup>이 완전히 꺼졌기 때문에<sup>120)</sup>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

115)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116) 그리스도.

117) *Sermons*, 14.

118) *Ibid.*, 34.

119) 혹은 명료한 지성.

120) 혹은 명료한 빛.



있는 구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적용하였다. 칼빈은 마귀가 하나님의 이러한 밝음을 그의 간교함으로 인간심령의 중심부에 빛나지 않도록 역사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칼빈은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적용하였다.<sup>121)</sup> 이어서 칼빈은 어둠의 세력으로 교황(2), 소피스트학파(1), 소르본느 학파(1), 마니교도(1)를 언급, 부분적인 적용을 하였다.

4) 성경의 사례를 들어 적용하였다.<sup>122)</sup> 강해설교는 성경구절의 설명과 문제해결을 위한 설교적용으로 이루어진다. 성경을 설명하지 않으면 강해가 될 수 없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용이 없으면 강해설교가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의미에서 강해가 아닌 기독교 설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 설교(행3:12)와 바울의 아덴설교(행17:22)에서 기독교 설교라는 명칭을 떼어 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강해설교라고 불러야만 하는 설교들 가운데에는 다른 형태들이 있다. 빌립은 구스 내시에게 이사야(53:7)의 짧은 구절을 설명해주는 반면, 스테반은 사도행전(7:2-53)을 가지고,<sup>123)</sup> 바울은 사도행전(13:16-41)을 통해,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적용을 하였다고 칼빈은 말했다.

---

121) 그러면 여기서 몇가지 그 실례들을 살펴보자. 칼빈은 신명기 설교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결정적으로 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서 ‘반복된 율법’이란 뜻인 ‘신명기(Deuteronomy)’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악행을 꾸짖기 위해서였습니다. 칼빈은 미가에 관한 첫 번째 강해에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지식 없이는 미가의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거나 최소한 다소 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칼빈의 설교에서 미가가 글을 쓴 상황과 그의 동시대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묘사한다. 그러나 그 설명 과정에서조차, 그는 이렇게 말을 돌린다. “이제 선지자는 확실히 그 자신의 시대에 봉사할 한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들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들이 특히 오늘날의 시대를 내다보았다고 말합니다.”

122) T. H. L. Parker, op. cit., 111.

123) Ibid., 112.

#### 4. 칼빈의 주석과 강해설교에 대한 결론

연구자는 김서택이 칼빈을 강해설교의 아버지<sup>124)</sup>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은 본문(요1:1-5)을 주석하였다. 그 내용의 특징으로, ①그리스도의 신성 강조, ②구원교리 강조, ③말씀의 이중적 관계성 강조, ④말씀의 선재성 강조, ⑤만물창조를 강조, ⑥생명을 강조, ⑦빛과 어둠을 강조하였다. 둘째, 칼빈은 강해설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였다. ①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 ②복음의 강조, ③그리스도의 덕(힘, 권능)을 강조, ④하나님의 얼굴 강조, ⑤하나님의 지혜 강조, ⑥생명의 선물 강조, ⑦4복음서의 역사성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칼빈은 강해설교를 성도들의 생활에 적용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성경을 강해설교한 즉시 적용하였다. ②반복해서 적용하였다. ③전체나 일부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요한의 신학을 대단히 존중한바, 사도요한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칼빈이 요한복음서를 공관복음 을 이해하는 열쇠로 본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

124) 김서택, *op. cit.*, 538.

### Ⅲ.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

연구자는 박형룡의 주해설교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박형룡의 주해설교(요 1:3,14,16)를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찾아 내었다.

#### 1. 본문주해(요1:3,14,16)및 설교<sup>125)</sup>

박형룡은 “본문(요1:3,14,16)”을 어떻게 주해하고 설교하였는지 그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본문(요1:3,14,16)을 주해, “도성인신(道成人身)”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1) 성자를 강조. 박형룡은 본문의 “말씀(요1:1)”을 “제2위 성자”로 설교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3위1체에 제2위이신 성자를 “말씀”으로 설교하였다. 말이란 것은 말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처럼 성자는 하나님을 표시하였으므로 말씀이라 한다.<sup>126)</sup> 요한복음1:18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설교했다. 그런고로 성자가 하나님을 표시한 방법으로는 몇 번 화신(化身)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교하였다.<sup>127)</sup>

2) 창조를 강조. 박형룡은 “(요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였다고 설교했다. 하나님의 제2위가 창조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125) 박형룡, 『저작전집XIX 설교②』,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3) 292-4.

126) Ibid., 293.

127) Ibid.

창조된 자연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이 함축되어 있으며, 위엄과 사랑과 의를 포함한다. 우주의 정연불문(整然不紊)한 자연법칙이 있어서 춘하추동과 동식물의 질서구조가 기묘하며, 섭리가 있어서 어떤 대이지(大理智), 대권력(大權力)의 존재를 암시하며, 또한 줄다려 타는 거문고인듯한 배경에는 어떤 큰 영광, 큰 위엄의 소유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고 설교하였다(시104:14-15).<sup>128)</sup> 고로 사람은 능히 자현(自現)된 지혜, 능력, 영광, 위엄,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추상할 수 있다고 증거하였으며,<sup>129)</sup> 땅에서 허다한 종교와 철학은 도로(徒勞)에 돌아가고 참신(神)을 발견치 못한다고 선포하였다.<sup>130)</sup>

3) 성도들의 생활을 강조. 박형룡은 예수를 성도의 생활로 나타내라고 설교하였다. 하나님이 세계(요1:14)에 화신하신(자연의 창조, 성화자)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여 사람의 생활에 하나님의 화신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계시록3:20에 “불찌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했다. 박형룡은 바울의 말을 인용, “나의 자녀들아...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갈4:19)”라고 설교하였다. 비록 우리향촌에서 불신자들이 독실한 성도들을 가르쳐 김예수, 이예수라 명칭을 붙이는 것은 성도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형성할 때에만 이 칭호가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도가 강생(降生)한 이후 별별 사변과 사실이 많이 생겼지만 그 초상(肖像)이 사람의 생활에 형성됨 만든 못할 것이라고 설교하였다.<sup>131)</sup>

4) 성육신을 강조. 박형룡은 본문(요1:14)을 가지고 “도성인신(道成人身)하신 성자(聖子)”로 설교하였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박형룡은 이

128) 박형룡, *op. cit.*, 294-5.

129) *Ibid.*, 294.

130) *Ibid.*

131) *Ibid.*, 296-7.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표현을 더 충만케하기 위하여 성자가 친히 인격적 화신(化身)으로 인자(人子)가 되어 강생하신 것임을 설교하였다. 1935년전 12월25일 유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출생한 이 가난한 어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심이라고 증거하였다.<sup>132)</sup> 그러므로 박형룡은 그리스도의 “도성인신(道成人身)(요1:14)”이라는 말은 너무 귀하지 않은가? 자연의 단편적 화신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불충분하였으므로 성자가 친림(親臨)하여 인생들 가운데 거하실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을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이를 위하여 “때가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갈4:4), 도성인신(道成人身)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sup>133)</sup>

도성인신(道成人身)(요1:14)의 내용을 조금더 요약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은혜와 진리 충만을 강조. 박형룡은 은혜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호감(好感)과 부여(賦與)한 이익(利益)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형룡은 그리스도의 3년 전도와 치병과 교훈은 무상한 호감발표인 동시에 또한 실제적인 이익부여요,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 또한 그러한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세계가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은혜의 충만은 여러 말 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진리란? 그리스도의 생활이 진실하사 거짓이 없음과 교훈이 변함없는 상도(常道)이심을 의미한다고 설교하였다.<sup>134)</sup> 박형룡은 그 생활을 일언으로 폐지하면 무죄생활이시니 천하고금에 오직 그리스도만 이것을 경험하신 바라고 말했다. 박형룡은 또한 그 교훈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변함이 없으시니 역사에 있는 성현철인(聖賢哲人)의 언행과 예수의 언행과 그 차이는 과연 천양(天壤)과 일영(日瑩)이라고 설교하였다.<sup>135)</sup>

132) Ibid.

133) Ibid., 294.

134) Ibid.

135) Ibid., 295.

(2)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 박형룡은 예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말씀이 임하였음을 선포했다. 그는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헬라사람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말씀이 나타난 것과 같이 하늘의 영광이 비쳤다고 강조하였다. 박형룡은 예수가 병을 고친 것,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 물결을 잔잔케하신 것, 이런 이적기사와 부활승천에 초인간적 사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러라”고 이르신 것과 같이, 이는 성자(聖子) 이외에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영광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설교하였다. 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영광은 단편적이며, 불완전하였으나 도성인신으로 표현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라고 선포하였다. 고로 박형룡은 예수께서 친히 선언하기를, “나를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14:9)”고 말씀하신 것을 부연설명으로 강조했다. 박형룡은 사람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은 심히 곤란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울이라, 저 안에 하나님의 지혜, 사랑, 영광을 볼 수 있다고 설교하였다.<sup>136)</sup>

## 2. 박형룡의 주해설교 및 그 특징

### 1) 긍정적인 특징

박형룡의 주해설교 속에는 독특하고 좋은 점들이 많다.

(1) 복음적이다. 박형룡은 “태초에 말씀(요1:1-5)”을 “도성인신(道成人身)”, 화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 지혜, 사랑, 진리라고 선포했다. 박형룡은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전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믿는자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인격화한다고 설교하였다. 따라서 설교는 이 복음으로 하여금 감화를 끼치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그

136) 박형룡, op. cit., 296.

목적이 있다고 그는 설교하였다.<sup>137)</sup>

(2) 성경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박형룡의 주해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중심적이며, 하나님 중심을 추구하는 성경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138)</sup> 이러한 점들이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을 줄만한 특징들이며, 설교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장점들이라고 생각된다.

(3) 경건과 영성에 특징이 있다. 박형룡은 영성과 경건에 철저한 설교자였다. 끝까지 보수주의 신학을 고수한 한국의 칼빈이라고 말 할 수 있다.<sup>139)</sup> 이것은 박형룡이 칼빈의 영성과 경건을 추종한 결과로 보여진다. 따라서 박형룡의 이러한 특징은 한국교회에 값진 유산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목과 대지가 있다.<sup>140)</sup> 강해설교는 특별한 대지가 없다. 하지만 칼빈과 박형룡의 설교에는 제목이 있고, 서론(칼빈은 없다)이 있으며, 본론과 결론등, 대지가 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전달방법이 된다. 김서택<sup>141)</sup>도 “강해설교는 대지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설교자 자신과 청중들에게 상호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해설교는 대지를 채우는 내용 자체가 본문에 대한 설명과 적용, 또는 논증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sup>142)</sup>

## 2) 부정적인 특징

박형룡의 본문(요1:3,14,16) 주해설교는 많은 장점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

---

137) Ibid.

138) Ibid., 293-7.

139) *Sermons*, 13-34.

140)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 (서울: 홍성사, 1999) 19-75.

141) Ibid., 20-73.

142) Ibid.

(1) 딱딱하고 어렵다. 고사성어와 한자 및 고어를 많이 썼다. 그 실례로 ①설교제목이 도성인신(道成人身)(요1:14)이다. ② “은혜”를 하나님의 호감(好感)과 부여(賦與)한 이익(利益)으로 표현하였다. ③ 예수님의 성장 및 공생애를 일언으로 폐지하면 ... 역사에 있는 성현철인(聖賢哲人)의 언행과 예수의 언행과 그 차이는 과연 천양(天壤)과 일영(日莛)입니다.<sup>143)</sup> 이러한 말뜻들은 한학을 수학한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sup>144)</sup> 우주의 정연불문(整然不紊)한 자연법칙이 있어서 춘하추동과 동식물의 질서구조가 기묘하며, 섭리가 있어서, 어떤 대이지(大理智), 대권력(大權力)의 존재를 암시한다.<sup>145)</sup> 이 설교는 청중들에게 딱딱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레이드(C. Reid)의 지적에 따르면, 한국교회 강해설교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통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말이나 고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듣는 청중들의 형편과 무관하게 설교한다.<sup>146)</sup>고 말했다.

(2) 논리성이 약하다. 주해설교의 특징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풀어 나가는 논리성이다. 그러나 박형룡은 그의 설교 서론에서 요한복음1:3을 읽어놓고, 3위1체에 제2위인 성자를 “말씀”으로 언급한 후,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1:18절의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 “성자의 화신(化身)”이 과거에 몇 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말하는 것은 설교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혼동을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sup>147)</sup>

(3) 시사성이 부족하다. 성경(요1:3,14,16)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적 특징의 지평융합을 담고 있다. 그 당시의 언어로 그 시대상황을 말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처방과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형룡의 설교(요1:3,14,16)가 그 시대(20세기 초반)를 진단하고, 그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준 하나님의

143) 박형룡, op. cit., 295.

144) Ibid.

145) 박형룡, op. cit., 293-4.

146) C. Reid, 『설교와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2) 19-28.

147) 박형룡, op. cit., p. 293.



메시지라고 할 때, 그런 점에서 박형룡의 주해설교는 시사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4) 음악성이 없다.<sup>148)</sup> 박형룡의 주해설교에는 음악성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 하나를 충실하게 해석하고 설교했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이것은 마치 숲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하나 하나를 살펴 나가는 것과 같다. 이점이 박형룡의 주해설교에 나타난 부정적인 특징중 하나이다.

(5) 예술성이 없다.<sup>149)</sup> “설교는 종합예술이다”라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는 언어, 음정, 절정, 결단, 결말등 한편의 설교는 그 자체가 예술이다. 하나님의 도성인신, 화신(化身)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설교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맥인 것은 좋으나, 예술성이 약하고, 결단을 강조해야 할 결론부에서, 본문설교 내용과 거리가 먼 “순교자 요한 허스(John Hoos)의 예화”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sup>150)</sup>

### 3.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에 대한 결론

박형룡은 본문을 깊이 주해하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의 주해설교에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말씀(요1:1-2)을 제2위인 성자로 설교하였다. 둘째, 본문(요1:3)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로 설교하였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생활로 나타낼 것을 강조하며 설교하였다. 넷째, 본문(요1:14)을 말씀의 도성인신으로 설교하였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광 그 자체라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예수 그리스도(요1:1-3)가 우주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과 영광과 은혜와 진리, 그 자체라고 설교하였다.<sup>151)</sup> 따라서 박형룡은 그리스도(요1:1-3)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설교하였다.<sup>152)</sup>

148) Ibid., 294-6.

149) 박형룡, op. cit., 293-7.

150) Ibid., 296-7.

151) Ibid., 295.

## IV. 칼빈설교와 박형룡설교 그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지금까지 연구자는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였다.

### 1. 공통점이 있다.

내용과 형식적으로 볼 때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는 공통점이 많다.

1) 신학적인 공통점이 있다. 칼빈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중심을 추구하는 성경신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sup>153)</sup> 여기에 박형룡도 타인의 추종을 불허한다.<sup>154)</sup> 위의 두사람은 공히, “태초에 말씀(요1:1-5)”<sup>155)</sup>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 그는 생명 그 자체시고, 인간의 빛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두 설교자의 성경신학적 공통점이자 3위1체 신학의 공통점이라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태초에 말씀(요1:1-5)”을 “복음”으로 설교하였다.<sup>156)</sup> 여기서 박형룡은 “성육신”을 강조하였다.<sup>157)</sup>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심이 인류구원에 얼마나 필요 불가결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사람의 설교가 복음적이다. 칼빈은 “복음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칼빈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하려고 힘썼다. 왜냐하면 설교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 수단이기 때문이다.<sup>158)</sup> 따라서 박

152) Ibid.

153) *Sermons*, 13-4.

154) 박형룡, op. cit., 293-7.

155) *Sermons*, 13-4.

156) *Ibid.*, 14-34.

157) 박형룡, op. cit., 293.

158) HO LOGOS (그리스어), sermo (라틴어), la parole (불어)

형통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였다.<sup>159)</sup>

3)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이 같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불렀다. 그는 “태초에 말씀(요1:1)”을 “하나님의 근본지혜”라고 설교하였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지혜이기 때문이다.<sup>160)</sup> 박형룡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설교하였다.<sup>161)</sup>

4) 성경무오 신앙을 가졌다. 칼빈과 박형룡은 성경무오 신앙 위에 서 있다. 두 설교자는 교회를 위해 성경무오 신앙을 교리적 차원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성경무오 교리를 창안했다고 말할 수 있다. 1500년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하게 영감된 책으로서 그 권위와 진정성, 그리고 신앙 그 자체였다. 교회 역사를 두고보면 성경중심이 전체 교회역사의 주류였다. 성경중심 사상(신앙)을 역사적으로 개관할 때 역사적 기독교 및 개혁주의 전통과 단절되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칼빈은 성경연구를 추구함으로써 학문적 황무지가 아니라 더 많은 성경중심적 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두사람의 설교문(요1:1-5)(요1:3,14,16)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성경무오신앙이다. 설교 전체속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다. 칼빈은 1549년 7월 12<sup>162)</sup>일 금요일, “끝까지 견디는 성경무오 신앙”을 설교하였다.<sup>163)</sup> 박형룡의 설교(요1:3, 14, 16)도 그 저변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성경무오 신앙”이었다.<sup>164)</sup>

5) 경건과 영성을 가졌다. 칼빈은 영성과 경건에 철저한 설교자였다. 그래서 그는 16세기 종교개혁, 즉 영적개혁에 승리하였다. 경건과 영성을 통해 세속화된 캐

---

159) 박형룡, op. cit., 293-7.

160) *Sermons*, 21.

161) 박형룡, op. cit., 296.

162) 예레미야 16장19절로21절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설교하였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 뿐이라”.

163) John Calvin, *Calvin's Sermon on The Books of Jeremiah*,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0) 184-94.

164) 박형룡, op. cit., 296.

톨릭 교회들과 영적전쟁에서 이긴 것이다.<sup>165)</sup> 따라서 박형룡도 영성과 경건에 있어서 칼빈을 닮아왔다.<sup>166)</sup>

6) 죄를 단호하게 책망하였다. 칼빈은 그 당시 설교를 통해 죄를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였다. 여기에 박형룡도 칼빈에 못지 않게 죄를 책망하였다. 이와같이 칼빈과 박형룡은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죄를 책망함으로써 그 시대에 영적각성을 주도하며, 몸소 실천에 옮겼다.

7) 소명의식이다. 칼빈은 요한복음(요1:1-5)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 얼마나 철두철미하였음을 보여준다.<sup>167)</sup> 칼빈이 소명의식에 철저했던 것은 성경의 사실을 강조하고, 고난을 수용하는데서 나타난다. 이러한 소명의식은 디모데후서의 설교에서도 나타난다.<sup>168)</sup> 칼빈은 이 설교에서 “도움을 받는 아픔”이라는 개념을 부가한다. 시작 부분에서 “아픔”과 하나님의 권위를 화합하는데 다소 생경(生硬)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승리할 “아픔”과 그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이 된다. 칼빈은 “사도바울이 남긴 모든 글들에서 죽을 인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모든 가르침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위있고 경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특별히 명심해야 할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피로 서명한 것처럼 소명에 견고히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내게 이 서신서는 성경 중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유익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유익하다”고 말했다.<sup>169)</sup>

---

165) *Sermons*, 14-33.

166) 박형룡, *op. cit.*, 293-7.

167) *Sermons*, 13-34.

168) T. H. L. Parker, *op. cit.*, 230.

169) *Ibid.*, 229-30.

8) 조용하게 해설식으로 가르치는 설교를 하였다. 칼빈은 조용 조용하게 해설식으로 설교하였다. 이것은 특히 4, 5세기에 행해진 방식이다. 성경전권을 한 구절 한 구절 씩 해설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칼빈의 설교 가운데에는 “가르친다”는 말이 배어있다.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다”라는 동사와 “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이다. 교육용어 중 하나인 “가르다”는 사람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거나 갈라서 길을 열어 주는 것을 말하고, “치다”라는 말은 수(數)적으로, 양(量)적으로 많이 번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170)</sup> 칼빈은 요리문답을 사용하여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교육적인 설교를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박형룡에게서도 나타난다.<sup>171)</sup> 박형룡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훈도적인 설교, 가르치는 설교를 하였다.<sup>172)</sup>

9) 딱딱하고 어렵다.<sup>173)</sup> 칼빈의 강해설교는 신학적으로 너무 깊이 파기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을 준다. 사상적으로 심오하기 때문에 어렵다. 중문, 복문 등 긴 문장을 쓰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박형룡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다. 그러므로 상호전달이 잘 안되었을 것 같다.<sup>174)</sup>

## 2. 차이점이 있다.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는 분명히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1) 두사람의 설교제목이 다르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sup>175)</sup>라고 했는데, 박형룡은 “도성인신”이라고 하였다.<sup>176)</sup>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역사와 초

170) *Sermons*, 21-2.

171) 박형룡, *op. cit.*, 293-4.

172) *Ibid.*, 294-7.

173) *Sermons*, 13-34.

174) *Ibid.*

175) *Ibid.*, 13.

자연적인 행적을 다룬 요한의 신학을 그대로 존중한다. 그러나 박형룡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한다. 따라서 두사람의 설교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그 강조점이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태초”에 대한 언급에 차이가 있다. 칼빈은 요한복음1:1-2의 “태초”<sup>177)</sup>와 창세기1:1의 “태초”를 구분하였다. 전자의 “태초”는 무시간적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그 자체이다. 그러나 후자의 “태초”는 시간적 시작을 의미하는 태초이다. 그러나 박형룡은 비교한 흔적이 없다.<sup>178)</sup>

3) 복음서에 대한 언급이 다르다. 칼빈은 4개의 복음서를 역사서<sup>179)</sup>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수난과 대속적 죽음, 장사, 부활, 승천, 다시 오심등을 일목요연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역사서라고 말했다. 칼빈이 4복음서를 4개의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형룡은 그러한 언급이 없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태초에 말씀(요1:1)”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 혹은 힘, 그리고 권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형룡은 “하나님의 지혜, 사랑, 영광, 진리,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였다.<sup>180)</sup> 따라서 이러한 말들은 두사람의 설교에 절정을 이루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서로 다른 차이점이 된다.

5) 서론과 예화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 칼빈의 강해설교(요1:1-5)에는 특별한 예화나 서론이 없다. 그러나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14,16)에는 서론과 예화 3개가 있다.<sup>181)</sup> 이런 점에서 칼빈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만큼

176) 박형룡, op. cit., 293.

177) *Sermons*, 13-20.

178) 박형룡, op. cit., 295-7.

179) *Sermons*, 13-4.

180) 박형룡, op. cit., 293-7.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충실하게 선포하려는데 집중하였다. 이런점에서 박형룡의 설교와 다르다.

6) 요한복음서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칼빈은 요한복음서가 공관복음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사도요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다른 복음서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보내어 졌는지, 그 이유와 역사를 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요한복음서의 비중(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sup>182)</sup> 그러나 박형룡에게는 그러한 흔적이 없다.

7)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언급에 차이가 있다. 칼빈은 사도바울이 자랑한 “복음”은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들이 모두 4복음서에 기록된 가르침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명제가 옳다고 말했다. 따라서 바울서신은 4복음서와 동등한 성경이요,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철저하게 동등한 사도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내용이 된다.<sup>183)</sup> 그러나 박형룡은 이러한 언급이 없다.

8) 교회절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칼빈은 교회절기(성탄절)를 무시한 흔적이 많은데, 박형룡은 긍정적(성탄절)으로 보았다. 리로이 닉슨(Leroy Nixon)에 따르면 칼빈은 성경전체를 순서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그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독교력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칼빈은 민수기에서 200개의 연속적인 설교를 했다. 칼빈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특별설교를 한번 했다. 칼빈은 1559년 부활절과 1560년 부활절에 대한 특별설교를 하였다. 따라서 칼빈은 가능한한 완전히 기독교력을 무시했다.<sup>184)</sup> 그러나 박형룡은 성탄절에 이 설교(요1:3,14,16)를 한 것으로 보

---

181) *Ibid.*, 296-7.

182) *Sermons*, 16.

183) *Ibid.*, 14-5.

184) *Ibid.*, 1.

아 교회절기를 긍정적으로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sup>185)</sup>

9) 설교(작성)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 칼빈의 설교는 대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즉흥적으로 작성되었다. 리로이 닉슨(Leroy Nixon)에 따르면 칼빈의 설교는 거의 모든 문장구조가 성령에 의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성령의 간섭 때문이었다. 사실 칼빈의 설교형태는 결코 문학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글은 읽거나 연설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성령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즉흥적으로 설명하였다.<sup>186)</sup> 그러나 박형룡은 그러한 언급이 없다.

10) 적용에 있어서 다르다. 칼빈은 설교적용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부분적이고, 전체적이었다. 때로는 성경구절을 드리대며,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에 관련된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형룡은 청중(성도)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적용(결론)에서 “순교자 허스(Jan Hus)”를 말하고 있다.<sup>187)</sup>

### 3. 그 이유를 살펴보자

칼빈과 박형룡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설교에 지평융합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칼빈은 설교에 ‘지평융합’을 실천하였다. 성경을 그 시대 속에 넣어 그 시대를 변혁시킨 것이다. 칼빈의 종교개혁은 성경과 시대, 두 지평간에 ‘융합’을 실현한 증표이다. 이것이 칼빈설교에 나타난 능력이다. 칼빈은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수호했다. 너무 수비적인 자

---

185) 박형룡, op. cit., 297.

186) *Sermons*, 1.

187) 박형룡, op. cit., 295-7.



세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성령의 검으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는 식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박형룡은 “지평융합”에 있어 칼빈을 능가하지 못했다. 이것이 두 설교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져온 이유가 된다.

2) 목회(신학)적 패러다임의 차이 때문이다. 칼빈은 시리즈 설교를 하였다. 칼빈의 기록된 거의 모든 설교들은 성경전권에 대한 연결 시리즈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칼빈은 주일 아침과 오후에 신약성경에 대해 설교를 했으며<sup>188)</sup>, 주중 아침에는 구약성경을 설교하였다. 그러나 박형룡은 다르다. 이것이 두사람의 설교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져온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이유가 된다.

3) 시대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6세기의 시대상황과 20세기의 청중들은 그 정보와 해석과 수용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 당시 국가와 교회 관계, 사회와 교회관계,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와의 관계, 성도와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경직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칼빈의 설교는 거의가 종교개혁과 연관되어 있다.

#### 4. 21세기 한국교회 강해설교의 방향

연구자는 앞에서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를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연구하였다. 그 장점들 가운데 21세기 한국교회 강단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겠는가? 이제 그 가능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칼빈<sup>189)</sup>과 박형룡<sup>190)</sup>처럼 성경연구에 최우

---

188) 한 동안 오후에 시편을 한 적도 있긴 있다.

189) *Commentaries*, 7-13.

190) 박형룡, *op. cit.*, 293-7.

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시간을 쪼개서 성경연구에 주력하되 총론적인 연구와 각론적인 연구를 병행하고, 몰두해야 한다. 칼빈은 설교<sup>191)</sup>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본문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2) 칼빈의 성경해석을 심화시키는 작업에 집중하여야 한다. 칼빈의 성경해석<sup>192)</sup>이 담고 있는 장점들을 21세기 한국교회 강단을 건강하게 세우는 첩경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성경은 해석학적 확실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먼저 해석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문자와 문장의 해석, 전후문맥을 따라 통시적으로 해석하는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성경의 어느 한 귀절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바른 성경해석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의 성경해석은 어디까지나 말씀의 절대주권 아래, 성경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sup>193)</sup>

3)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칼빈은 설교에 포용력을 가졌다<sup>194)</sup>.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인간사 모든 역사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간섭하시사,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교리는 마음에 주님을 채워주는데 있어서 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모든 상처들을 싸매는 하나님의 붕대다. 칼빈에게 섭리와 보전교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것들은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자주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데 함께 처방되는 일이 흔하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와 구속, 곧 성삼위 안에서 섭리적이고 구원론적이며, 영적으로 통일된 과정을 통해 포용력을 발휘한다<sup>195)</sup>.

---

191) *Sermons, 13-34.*

192) *Commentaries, 7-13.*

193) *Ibid.*

194) *Sermons, 13-34.*

4) 설교자의 영성회복이다. 칼빈은 영성설교에 주력하였다.<sup>195)</sup>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목회현장,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경건과 영성이다. 21세기 한국교회 설교강단이 요구하는 설교자는 경건과 영성이 겸비된 자이다. 이러한 설교자만이 21세기 혼탁한 정신통화의 홍수를 가르며, 21세기 교회강단을 책임 질 수 있다.

5) 21세기 한국교회 강해설교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다양한 이미지 창출이 요구된다. 칼빈은 설교내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가졌다<sup>197)</sup>. 그러한 다양성이 칼빈의 설교 안에서 모두 반영된다. 6개월이나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칼빈과 그의 회중들은 성경 저자의 생각 안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러한 경향은 칼빈의 본문(요1:1-5)설교 내용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sup>198)</sup>

---

195) *Ibid*, 13-34.

196) *Ibid*

197) *Sermons*, 13-34.

198) *Ibid*.

## V. 결 론

연구자가 지금까지 칼빈의 본문주석과 그의 강해설교, 그리고 박형룡의 주해설교를 연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논문은 칼빈의 본문주석(요1:1-5)과 그의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 및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14,16)에 나타난 성경신학적, 교리적, 역사적 특징들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칼빈의 설교(요1:1-5)집(영문)과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14,16) 문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동원하였으며,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expository preaching*) 특징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제II장에서 칼빈은 본문(요1:1-5)을 주석하고, 주석한 이 본문을 강해설교에 반영하였다. 칼빈은 첫째, 본문(요1:1-5)주석의 특징으로, ①그리스도의 신성강조, ②구원교리강조, ③말씀의 이중적 관계성 강조, ④말씀의 선재성 강조, ⑤만물 창조를 강조, ⑥생명을 강조, ⑦빛과 어둠을 강조하였다. 둘째, 칼빈은 강해설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였다. ①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 ②복음의 강조, ③그리스도의 덕(힘, 권능)을 강조, ④하나님의 얼굴 강조, ⑤하나님의 지혜 강조, ⑥생명의 선물 강조, ⑦4복음서의 역사성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칼빈은 강해설교를 성도들의 생활에 잘 적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성경을 강해한 즉시 적용하였다. ②반복해서 적용하였다. ③전체나 일부를 적용하였다.

칼빈은 요한의 신학을 대단히 존중하며, 사도요한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칼빈이 요한복음서를 공관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로 본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제III장에서 박형룡은 본문(요1:3, 14, 16)을 깊이 주해하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의 주해설교에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말씀(요1:1-2)을 제2위인 성자로 설교하였다. 둘째, 본문(요1:3)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로 설교하였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생활로 나타낼 것을 설교하였다. 넷째, 본문(요1:14)

을 말씀의 도성인신으로 설교하였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광 그 자체라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예수 그리스도(요1:1-3)”가 우주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과 영광과 은혜와 진리, 그 자체라고 설교하였다.<sup>199)</sup> 그러므로 그리스도(요1:1-3)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설교하였다.<sup>200)</sup>

제IV장에서는 칼빈의 강해설교(요1:1-5) 특징과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두사람의 공통점은 첫째, 본문(요1:1-5),(요1:3, 14, 16)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같다. ①말씀(요1:1-2)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 ②본문을 복음으로 설교한 것, ③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④성경무오신앙, ⑤경건과 영성, ⑥ 죄를 책망, ⑦철저한 소명의식, ⑧조용하게 가르치는 설교, ⑨딱딱하고 어렵다는 점등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은 위기속에 있는 21세기 한국교회 설교강단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는 새벽별같은 메시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를 연구한 이 논문이 21세기 한국교회 설교강단에 긍정적인 방향타로 작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199) 박형룡, *ibid.*, 295.

200) *Ibid.*

## 참 고 문 헌

- Calvin, John. *Sermons on the Saving Work of Christ*. Selected and Translated by Leroy Nix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47.
- \_\_\_\_\_. *John 1-10.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Grand Rapids: Eerdmans, 1961.
- \_\_\_\_\_.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Translated by John King.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48.
- \_\_\_\_\_. *The Old Testament Commtaries on the Jeremiah Vol I*. Translated by the Rev. John Dwe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5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rmons on the Saving Work of Christ*. Edited by J. T. McNei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 trans.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 C. Reid. 「설교와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2.
- Edwin C. Dargan. 설교의 역사II. 서울: 솔로몬, 1995.
- Stauffer, Richard. *Calvin et Sermon*. 박건택 편역. 서울: 나비, 1990.
- Scott, E. F. *The Literature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 Tenney, M.C. *The Gospel of John*. The Expositor's Bible Commantary. Ed. by F. E. Gaebelin. Grand Rapids: Zondervan Pub. House, 1981.
- Warfield, B. B. *Calvin and Calvinism*.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설교』. 서울: 홍성사, 1999.
- 데니스 라인. 『강해설교 자료모음집』. 서울: 두란노서원, 1985.
- 민기태. 「칼빈의 설교내용 연구」. 풀러 신학대학원 출판부 학위논문, 1995.
- 박건택 역.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0.
- \_\_\_\_\_. 『칼빈의 설교학』. 서울: 도서출판 나비, 1988.
- \_\_\_\_\_. 『칼빈의 설교』. 서울: 나비, 1990.
- 박형룡. 『저작전집』.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77.
- \_\_\_\_\_. 『저작전집XIX 설교②』. 서울: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3.
- 박형용. 『사복음서 주해 I』. 서울: 합동신학개학원 출판부, 1997.
- 존 칼빈. 『신약성경 주석(요한복음 I)』. 존 칼빈 성경주석 편찬위원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79.
- \_\_\_\_\_. 『요한칼빈 설교집(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임성욱역. 서울: 은성, 1989.
-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1.
- \_\_\_\_\_. 「칼빈의 생애와 사상」 서울: 세종문화사, 1980.
- \_\_\_\_\_.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_\_\_\_\_. 『칼빈주의 사상과 삶(Calvinism as the Life-System)』,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9.
- 존 스타트.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 차영배. 「신학의 방법과 원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T. H. L. Parker.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울: 솔로몬 말씀사, 1997.
- 프랑시스 웬델. 『칼빈의 신학 서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8.
- 이상근. 『신약성서 주해 요한복음』,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1.
- 이종윤. 『요한복음 강해 I』. 서울: 필그림 출판사, 1996.

## 칼빈의 강해설교연구(요1:1-5)

이 역 주

계명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과

(지도교수 황 계 범)

(초록)

연구자가 지금까지 칼빈의 본문주석과 그의 강해설교, 그리고 박형룡의 주해설교를 연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논문은 칼빈의 본문주석(요1:1-5)과 그의 강해설교(*expository preaching*) 및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14,16)에 나타난 성경신학적, 교리적, 역사적 특징들을 밝히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칼빈의 설교(요1:1-5)집(영문)과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14,16) 문헌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동원하였으며,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expository preaching*) 특징들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제II장에서 칼빈은 본문(요1:1-5)을 주석하고, 주석한 이 본문을 강해설교에 반영하였다. 칼빈은 첫째, 본문(요1:1-5)주석의 특징으로, ①그리스도의 신성강조, ②구원교리강조, ③말씀의 이중적 관계성 강조, ④말씀의 선재성 강조, ⑤만물 창조를 강조, ⑥생명을 강조, ⑦빛과 어둠을 강조하였다. 둘째, 칼빈은 강해설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조하였다. ①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 ②복음의 강조, ③그리스도의 덕(힘, 권능)을 강조, ④하나님의 얼굴 강조, ⑤하나님의 지혜 강조, ⑥생명의 선물 강조, ⑦4복음서의 역사성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칼빈은 강해설교를 성도들의 생활에 잘 적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성경을 강해한 즉시 적용하였다. ②반복해서 적용하였다. ③전체나 일부를 적용하였다.

칼빈은 요한의 신학을 대단히 존중한 바, 사도요한의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칼빈이 요한복음서를 공관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로 본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제III장에서 박형룡은 본문(요1:3, 14, 16)을 깊이 주해하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의 주해설교에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의 말씀(요1:1-2)을 제2위인 성자로 설교하였다. 둘째, 본문(요1:3)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창조자로 설교하였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생활로 나타낼 것을 설교하였다. 넷째, 본문(요1:14)을 말씀의 도성인신으로 설교하였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영광 그 자체라고 설교하였다. 박형룡은 예수 그리스도(요1:1-3)가 우주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며,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과 영광과 은혜와 진리, 그 자체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요1:1-3)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설교하였다.

제IV장에서는 칼빈의 강해설교(요1:1-5) 특징과 박형룡의 주해설교(요1:3, 14, 16)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두사람의 공통점은, 첫째, 본문(요1:1-5),(요1:3, 14, 16)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같다. ①말씀(요1:1-2)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 ②본문을 복음으로 설교한 것, ③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④성경무오신앙, ⑤경건과 영성, ⑥ 죄를 책망, ⑦철저한 소명의식, ⑧조용하게 가르치는 설교, ⑨딱딱하고 어렵다는 점등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가 지니고 있는 장점들은 위기속에 있는 21세기 한국교회 설교강단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는 새벽별같은 메시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칼빈의 강해설교와 박형룡의 주해설교를 연구한 이 논문이 21세기 한국교회 설교강단에 긍정적인 방향타로 작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A Study on the John Calvin's Expository Preaching (John 1:1-5)

Lee, Oeck-Joo

Department of Ministr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Keimyung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Hwang, Jae-Buh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biblical, theological, dogmatic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appeared on the Calvin's commentary(John 1:1-5), his expository preaching and Park, hyung-ryong's commentary preaching(John 1:3,14,16). To analyze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preaching, the collections of Calvin's preaching(English edition) and Park's preaching were examined.

In chapter II, Calvin commented on the text(John 1:1-5) and gave an expository preaching with the commented tex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lvin's commentary(John 1:1-5) were as follows: First, Calvin emphasized on the ① Jesus Christ's Divinity, ② salvation dogma, ③ double relationship of the Word, ④ ex-existing Word, ⑤ creation of all lives, ⑥ the life, ⑦ light and darknes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Calvin's expository preaching emphasized on the ① Jesus Christ's Divinity, ② gospel, ③ Christ's virtue(power), ④ God's face, ⑤ God's wisdom, ⑥ the gift of life, ⑦ historical traits of four gospels. Third, Calvin's expository preaching was well applied to the life of congregation. The contents were ① Calvin applied immediately after preaching the Bible. ② applied repeatedly, ③ applied all or in part.

In chapter III, Park's preaching out of the text(John 1:3, 14, 15) in the title of "Truth come true Human's body"(道成人身). The characteristics of park's preaching were as

follows; He preached ① the Word in the context(John 1:1-2) as the son of God, ② Jesus Christ in the text(John 1:3) as the creator of all the creatures, ③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s character while christians are living, ④ the Word in the text(John 1:14) as incarnation, ⑤ Jesus Christ as God's grace, truth and glory itself. Park preached that Jesus Christ was the only one revealing God completely through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He was God's wisdom, love, glory, grace and truth itself. Thus, Christ(John 1:1-3) was the mirror reflecting God.

In chapter IV, the characteristics of Calvin's expository preaching (John 1:1-5) and Park's commentary preaching(John 1:3, 14, 16) were compared. The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n the text was common. Those common traits were ① the Word was interpreted as Jesus Christ, ② preaching the above text as a Gospel, ③ having the same name on the Jesus Christ, ④ the infallibility of the Bible, ⑤ piety and spirituality, ⑥ reproof on the sin, ⑦ thorough calling consciousness, ⑧ taciturn preaching, ⑨ very hard and difficult preaching.

Thus, these advantages of Calvin's expository and Park's commentary preaching were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message to open the possibility of current Korean churches toward 21st century. Therefore this study could play a positive role to Korean churches.